



사선에서

12일 강원도 원주 양궁경기장에서 열린 제23회 회장기 전국남녀대학·실업양궁대회에서 선수들이 과녁을 향해 활시위를 겨누고 있다. /연합뉴스

‘위’ 험한 남자대회 출전

위성미, 비난 여론 속 PGA 84럼버클래식 참가

유럽프로골프(EPGA) 투어에서 손맛을 본 ‘천만달라리의 소녀’ 위성미(17·나이키골프)가 다시 한번 남자대회에 도전한다.

위성미는 14일(한국시간) 오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파밍턴의 네머콜린 우드랜드골프장(파72·7천516야드)에서 개막하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84럼버클래식에 출전한다.

위성미는 올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치른 7차례 대회에서 여섯 차례나 ‘톱 5’에 드는 등 강자의 입지를 다졌지만 남자대회에서는 최근 내리막이 뚜렷하다.

아시아프로골프 투어 SK텔레콤오픈 컷 통과는 변방 투어대회라는 이유로 평가절하된 데다 PGA 투어 존디어클래식 중도기권과 오메가 마스터스에서 최악의 성적을 내면서 ‘더 이상 남자대회에 나서지 말라’는 주문이 힘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미셀 위는 무너진 자존심을 되찾고 한때 팬들과 전문가들에게서 받았던 기대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가 됐지만 사정은 녹록지 않다.

올해 세 차례 남자대회에서 8라운드를 치른 그의 라운드당 평균 스코어는 74.25타.

작년 세 차례 대회에서 낸 평균 73타보다 훨씬 나빠졌다.

여자대회에 비해 남자대회 성적이 갈수록 나빠지는데 대해 전문가들은 ‘스윙의 변화’를 꼽는다.

한때 ‘빅 위지’라는 별명을 얻었던 위성미의 부드럽고 리드미컬한 스윙은 남자 대회에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남자 선수들과 비거리 경쟁을 벌이려다 보니 스윙이 강하고 빠르게 바뀌었고 이는 결국 샷의 정확도를 크게 떨어트리는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LPGA 삼성월드챔피언십 한국인 7명 출전

세계 정상급 선수 20명만 초청해 치르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삼성월드챔피언십에 한국인 또는 한국계 선수만 무려 7명이 출전하게 됐다.

12일 대회조직위원회에 따르면 4개 메이저대회 우승자와 특별 초청 선수 등이 이미 출전이 확정된 가운데 11일 끝난 LPGA 투어 존 뉴해먼스호텔클래식까지 삼금랭킹을 따져 14명의 출전 선수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19명이 출전 자격을 획득했으며 나머지 1명은 유럽여자프로골프(LET) 최우수 선수로 채워진다.

한국 선수로는 메이저대회인 맥도널드 LPGA챔피언십 챔피언 박세리(29·

CJ)를 비롯해 삼금랭킹 4위 김미현(29·KTF), 8위 장정(26·기업은행), 9위 한희원(28·윌라코리아), 10위 이선화(20·CJ), 16위 이미나(25·KTF) 등이 출전 자격을 따. 또 조직위원회가 특별 초청한 위성미(17·나이키골프)까지 합치면 전체 출전 선수의 35%를 한국인 또는 한국계가 차지하게 됐다.

한편 이번 대회 출전 선수는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 카리 웹(호주), 로레나 오초아(멕시코), 크리스티 커, 줄리 잉스터, 폴라 크리머, 나탈리 겔비스, 브리타니 린시킴, 팻 허스트(이상 미국), 소피 구스타프손(스웨덴 등 최강자로 채워졌다.

‘8자스윙’ 짐 퓨릭 랭킹 2위

‘8자(字) 스윙’으로 유명한 짐 퓨릭(미국)이 필 미켈슨(미국)을 제치고 세계골프랭킹 2위로 도약했다.

퓨릭은 12일(한국시간) 발표된 공식 랭킹에서 타이거 우즈(미국)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최재호기자 lion@

11일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캐나다오픈에서 역전 우승해 시즌 2승이자 통산 12승을 획책한 퓨릭은 랭킹 포인트가 8.99로 미켈슨(8.70)을 근소한 차이로 제쳤다.

비제이 싱(피지)과 애덤 스콧(호주)이 각각 4위와 5위를 달렸다.

한편 퓨릭은 시즌 삼금 랭킹도 608만 4천달러로 우즈(864만1천달러)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최재호기자 lion@



김진우 “방어율왕 도전”

12일 현재 97.2 이닝 방어율 2.49

‘괴물신인’ 1위 류현진(2.33) 추격

규정이닝 채우면 선두 탈환 가능

“방어율 ‘왕좌’는 내꺼”

‘돌아온 에이스’ 김진우(23·KIA)가 방어율 부문 1위 탈환에 도전한다.

김진우는 12일 현재 올 시즌 16경기에 출전, 97.2이닝 10승3패, 27자책점, 2.49의 방어율을 기록 중이다.

김진우는 특히 어깨 부상에서 복귀한 지난 5일 대전 한화전에서 2연승을 질주하며 최고의 컨디션을 보이고 있다.

방어율 부문은 2위까지 올라섰지만 아직 규정이닝(126이닝)을 채우지 못해 공식 순위에선 이름이 빠져있다.

하지만 KIA가 18경기를 남겨놓고 있는 만큼 김진우는 앞으로 4~5차례 선발 등판에 모자란 28.1이닝을 채운 뒤 내친김에 방어율 1위 자리까지 넘보겠다는 각오다.

규정이닝만 채운다면 다른 선수들에 비해 그동안 쌓아놓은 이닝 수가 적은 김진우로서는 매 등판 때마다 방어율을 낮출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

김진우가 방어율 1위(2.33)인 ‘괴물 신인’ 류현진(한화)을 따라 잡는 건 시간 문제라는 말도 이 때문이다.

이같은 김진우의 막판 후환에 ‘트리플 크라운’ 달성을 꿈꾸는 류현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류현진은 현재 다승(17승), 탈삼진(184개), 방어율(2.33) 부문에서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켜내며 한국 프로야구에서도 희귀한 트리플 크라운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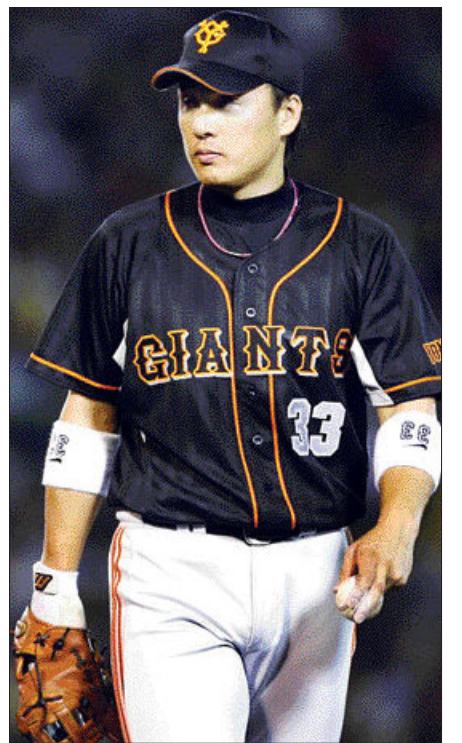
투수 부문서 ‘트리플 크라운’은 선동열 삼성 감독이 현역 시절 4차례(1986년, 1989~1991년) 달성한 것 외에 그 누구도 근접하지 못한 대기록이다.

류현진은 일단 다승과 탈삼진 부문은 2위권과 격차가 커 사실상 1위를 확정지은 상태다.

하지만 부상을 딛고 갑자기 등장한 선배 김진우의 호투에 나머지 방어율 부문은 안심할 수 없게 됐다.

올 시즌 마지막 4강행 티켓을 놓고 두산과 접전중인 KIA로선 이같은 김진우의 막판 방어율 1위 도전이 무엇보다 큰 힘이 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이승엽 꼭 잡아라  
요미우리 총력전

日 ‘스포츠티폰’ 보도

일본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이승엽(30)과 고쿠보 히로키(35)를 내내에도 붙잡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일본의 스포츠전문지 ‘스포츠티폰’은 12일 인터넷판에서 요미우리가 올 시즌 후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는 히로시마의 우완 에이스 구로다 히로키 쟁탈전에 뛰어 들 예정이라고 전하면서 또 다른 FA 거포 오가사와라 미치히로(니혼햄)에게는 소극적이라고 덧붙였다.

요미우리가 오가사와라에게 미온적인 표면적인 이유는 이승엽과 고쿠보 등 포지션이 겹치는 선수가 돌아나 있기 때문이다.

오가사와라는 3루와 1루 수비가 모두 가능한데 1루는 불박이 이승엽이 버티고 있고 3루는 고쿠보가 있어 오가사와라가 그다지 절실한 상황은 아니다.

올해 31개의 홈런으로 퍼시픽리그 홈런 1위를 달리고 있는 오가사와라는 출중한 기량은 물론 선수단을 장악하는 카리스마가 돋보이는 선수.

어느 팀이든 탑을 낼만한 선수이나 요미우리는 올시즌 일본프로야구 전체 홈런 1위인 이승엽과 역시 보스 기질이 농후한 고쿠보를 잔류시키는 게 오가사와라를 새로 데려오는 것 보다 낫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라 다쓰노리 감독을 비롯한 요미우리 구단 수뇌부가 모두 나서 이승엽의 잔류를 강하게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승엽을 중심으로 팀이 재편되고 있는 단편을 엿볼 수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백차승-‘강속구 투수’ 버넷 내일 맞대결

선발 3연승으로 순항중인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백차승(26·시애틀 매리너스)이 강속구 투수 A.J 버넷과 맞대결을 벌인다.

시애틀 구단은 12일 보도 자료인 ‘게임 노트’를 통해 백차승이 14일 오전 5시35분 세이프코필드에서 열린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홈경기에 선발 등판한다고 예고했다.

161km의 광속구를 뿌리는 버넷은 올해 7승7패, 평균자책점 4.19.

지난달 하순 2년 만에 버넷에게 올라와 네 차례 선발 등판에서 3승 무패, 평균 자책점 2.22의 깔끔한 투구를 펼치며 내년 시즌 선발 로테이션 진입을 꿈꾸는 백차승은 토론토를 상대로 2년 전 빛을 실컷 봤을 예정이다.

토론토는 백차승에게 버리고 첫 패를 안긴 팀이다. 백차승은 2004년 9월3일 토론토 로저스 센터에서 벌어진 방문 경기에 선발 등판, 2.2이닝 동안 홈런 2방 포함, 안타 8개를 맞고 8실점한 뒤 패전 투수가 됐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 뉴욕 양키스, 보스턴 등 강팀을 상대로 선발로 나서서 경험을 쌓았고 특히 8월28일 보스턴전에서 후 탬파베이, 텍사스를 제물로 3연승을 달리고 있어 어느 팀도 백차승을 쉽게 넘볼 수 없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